

보르디가 스탈린과 대화 **Rate and Mass** 중 일부

엔리코단돌로

The law is based on the general historical process – denied by no one, apologized for by everyone – of the incessant development of productivity due to the application of ever more complicated instruments, tools, machines, ever more diverse technical processes and of scientific achievements on manual labour. For a given mass of products, fewer and fewer workers are needed. The capital advanced that needed to be invested to get hands on this mass of products continuously changes what Marx calls the organic composition: ever more substance-based capital, ever less wage capital. Few workers suffice to bestow an enormous “increase in value” on the to be processed material, because they can process a lot more of it in comparison to the past. In this too one agrees. And further? Even assumed that capital exacerbates exploitation and increases the rate of surplus value by paying the workers less (even though this often happens, it only has the character of a law from the point of view of lounge revolutionaries), the squeezed out surplus value, respectively profit, will indeed increase, in face of the much stronger increase of the mass of purchased raw materials, with equal number of labour powers, the profit rate will continue to fall: Precisely because the rate expresses the relation of the slightly bigger profit (profit mass) to the enormously increased total advance in wages and material.

Capital demands the “maximum profit”? For sure, it demands it and it finds it as well, but it cannot prevent that meanwhile the profit rate falls. The mass of profit increases, because the population and still more the proletariat grows, the processed material becomes ever more impressive and the mass of products increases.

There is no contradiction with the Marxian law of the fall in the rate of profit, which could only be detained by the reduction of labour productivity, by “degeneration” of the organic composition of capital; an issue against which Stalin at the moment hauls out the big guns, a terrain on which he desperately tries to subdue his enemies.

이 법칙(평균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일반적인 역사적 과정, 보다 복잡한 장비, 도구, 기계, 더 다양한 기술적 과정과 수작업에 대한 과학적 업적의 적용으로 인한 끊임없는 생산성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어진 대량 생산의 경우, 점점 더 적은 수의 노동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량 생산물을 손에 넣기 위해 투자해야 했던 자본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유기적 구성 즉, 더 많은 물질적 기반 자본, 더 적은 임금 자본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 재료에 대해 엄청난 "가치 상승"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근로자는 거의 없다.

이 점에서도 역시 사람들은 동의한다. 그리고 더 무엇이 있는가?

심지어 자본이 착취를 악화시키고 노동자들에게 덜 지불함으로써 잉여 가치의 비율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하기도 한다(이것은 종종 일어나지만, 방구석 혁명가들의 관점에서만(필연적인) 법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훨씬 더 강한 증가세에 직면하여, 쥐어짜낸 잉여 가치는 실제로 증가할 것이다.

동일한 수의 노동력을 가진 채 구매한 원자재 덩어리의 이익률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정확하게 그 비율이 임금과 재료의 총증가율과 약간 더 큰 이익(이익 질량)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자본은 "최대 이익"을 요구한다? 확실히, 자본은 최대 이익을 요구하고 또한 발견하지만, 이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익의 질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인구와 프롤레타리아가 여전히 더 많이 성장해, 가공된 재료는 더욱 인상적이게 되고 제품의 질량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유아기에 자본은 많은 부분으로 나뉘지고 좋은 비율로 투자되지만, 노년기엔 적은 수로 나뉘진 거대 자본들(축적과 병행하는 자본 집중의 결과)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낮은 비율로 투자된다. 그러나 이는 엄청나고 현기증나는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이익, 평균적인 비즈니스 자본과 수익의 증가를 낳는다.

여기에 마르크스의 이윤율 하락 법칙과 모순은 없다. 그것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쇠퇴에 의한 노동 생산성의 감소로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www.marxists.org/archive/bordiga/works/1952/stalin.htm>

번역(기) 상태는 신경쓰지 마...사실 방구석 혁명가라는 단어 때문에 꽃혀서 이 단락만 올림

그래도 맑시스트 인터넷 아카이브에 좋은 글 많은데 번역 조금씩이라도 모였으면